



출판진흥원, ‘출판을 말한다, 그리고 바란다’ 토론회 개최 “출판매출 급감 · 지역서점 폐업 악순환 끊을 출판지원 늘려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지난 1월 30일 출판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부길만 교수의 사회로 이재호 원장과 김민웅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배영대 중앙일보 기자 등 8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출판을 말한다, 그리고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길만 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우리 출판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이 이뤄졌다.

세션1에서는 이재호 출판진흥원장이 ‘2013년을 출판 르네상스의 원년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배영대 중앙일보 기자가 ‘출판의 위기, 신뢰의 위기’,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가 ‘균형잡힌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

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세션2에서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책 읽는 나라, 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임선복 어린이도서연구회 정책국장이 ‘즐거운 책 읽기, 삶을 가꾸는 책 읽기’,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이 ‘책 읽는 문화국가의 비전과 독서 및 출판 진흥정책’, 양수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정무위원장이 ‘우리곁에 동네서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초청자 자유토론에는 박찬익 한국출판학회 이사가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과의 연계’, 권혁재 한국학술출판협회 회



부길만
동원대학교 교수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장이 '학술도서 출판의 위기와 타개방안 모색', 김성민 아이웰콘텐츠 대표가 'eBOOK only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지원 있어야'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재호 원장 "2013년을 출판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이재호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2012년 영화, 방송, 광고, 음악, 캐릭터 등 전체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89조원으로 2011년 83조원에 비해 6.9% 증가했다. 수출 역시 매출 증가추세와 더불어 28조원으로 집계돼 2011년 24조원보다 16% 늘었다. 다양한 콘텐츠의 경쟁력과 한류문화의 확산이 수출을 확대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반해 출판계는 어두웠다. 종이책은 정체됐고, 그나마 전자책 부문이 전년대비 158% 증가해 새로운 출판장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신간 발행종수 역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23%가 줄었다. 한국출판인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월까지 출판사 매출은 2011년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서점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도서총판과 지역서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1994년 5600여개에 달하던 국내 서점 수는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지난해 서점 수는 1723개로 1994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서점의 감소는 한 사업자의 폐업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데, 이는 동네책방이 지역과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쉽게 책을 보고 접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향유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점도 1997년 출현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0년 시장점유율 35%를 넘기며 승승장구했던 온라인서점은 오픈마켓과 대형마트 등과 같은 도서 유통대체제가 급성장하면서 과거 중소지역 서점과의 경쟁에서 선점했던 위치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정책과 관련해 임기내 국가문화재정 2%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향후 5년 동안 문화재정의 전체적인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출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13년이 출판르네상스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영대 기자 "개별지원보다 출판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부기자는 지정토론에서 "출판진흥원은 전체 예산중 57억원을 우수 출판기획, 우수 저작 출판, 1인 출판, 우수 디자인, 지역서점, 출판유통정보화 등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내놨다. 예산을 알뜰하게 나눠 쓰는 미덕도 발휘해야겠지만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출판사나 서점에 대한 개별적 지원방식보다는 출판계 전반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한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출판지원도 한 방법이다. 또한 다양한 읽기운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개별적 우수자를 뽑아 수상하는 방식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읽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구용 대표 "균형잡힌 해외진출 전략이 필요한 때"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날로 하락해 가고 있는 독서문화를 정비하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서점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 출판계를 건져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출판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론을 무겁게 수렴하고, 그것을 열린 소통의 장에서 폭넓은 식견과 혜안을 가진 여러 인사들과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그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지와 열망만 높다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각각의 과제를 단기에 해결하겠다는 성급함보다는 사안별로 완급을 조절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흥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진흥원은 흠어진 한국 출판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진흥원의 실질적 주인인 한국 출판계는 사업 추진체인 진흥원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에서는 300여명의 출판관계자들이 참여해 우리 출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